

濟大新報

濟大新報社 濟南市經二路一號 電話：(051) 6141-7 262-269

真正自進 義我執

社告 本報創刊於1952年...

학부모에게 公翰발송

여름학기 개설시급

학부모에게 공翰발송... 여름학기 개설시급... 학부모에게 공翰발송... 여름학기 개설시급...

35일 연장되는 하계방학

1천7백여명 학생활동 예상돼 기술봉사활동및 각종연수로



35일 연장되는 하계방학... 8월 27일 개강

후기졸업식 8.30일(수) 오후 2시 22일

후기졸업식 8.30일(수) 오후 2시 22일... 학사규정 개정... 후반기 졸업식...

학사규정 개정

학사규정 개정... 후반기 졸업식... 학사규정 개정... 후반기 졸업식...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8월 27일 개강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8월 27일 개강...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부적희망자 2백여명 취업

부적희망자 2백여명 취업... 부적희망자 2백여명 취업...

정년퇴임식 가져

정년퇴임식 가져... 정년퇴임식 가져...

총동창회 「동문의 밤」 개최

총동창회 「동문의 밤」 개최... 총동창회 「동문의 밤」 개최...

학부모에게 公翰발송

학부모에게 公翰발송... 학부모에게 公翰발송...

학사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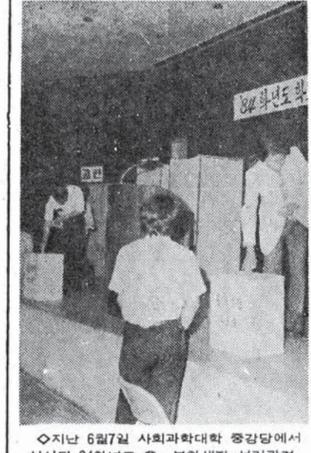
학사규정 개정... 학사규정 개정...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池風文... 池風文... 池風文...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 1984년 6월 18일 전원개정규칙 제 82호



Portrait of a student...

Portrait of a student... 학부모에게 公翰발송...

Portrait of a student... 학사규정 개정...

Portrait of a student...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Portrait of a student... 부적희망자 2백여명 취업...

Portrait of a student... 정년퇴임식 가져...

Portrait of a student... 총동창회 「동문의 밤」 개최...

Portrait of a student... 학부모에게 公翰발송...

Portrait of a student... 학사규정 개정...

Portrait of a student... 총·부학생회장 선출됨...

省察科發展의 계기가 되기를...

한 하느님 나라

社說

한국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의 바람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의 바람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르크주의의 일차원적 인간론

마르크주의의 인간론은 인간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동물로 보며, 인간 본성의 문제를 사회제도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이 관점은 인간 본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구조개혁통한 의식혁명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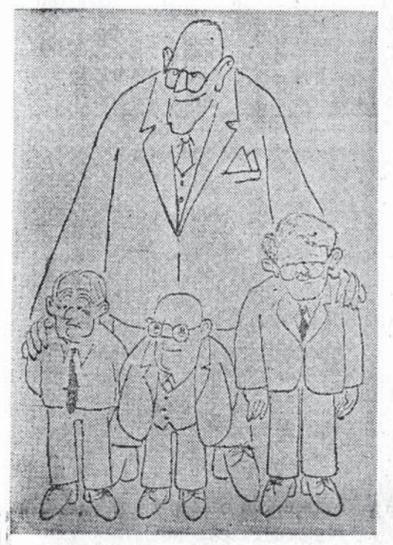
목적론적 二分法사고로 현대사회분석

이 글은 현대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한다. 목적론적 사고와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혁명을 주장한다.



許正勳

본지 특필위원인 정정훈씨는 최근 '마르크주의의 일차원적 인간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마르크주의의 인간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토피아를 현실적목표로 고집할때 독단적고조화 발생

이 글은 현실과 이상(유토피아) 사이의 괴리를 논한다. 현실적 목표를 고집할 때 발생하는 독단적 고조화를 경고하며, 현실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부익편재로 초래된 부작용, 계층간 위화감 조성

사회가 부익편재로 인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高忠

본지 특필위원인 고충씨는 최근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사회적 통합과 계층 간 위화감에 대해 논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이 글은 1면에서 계속된 내용을 다룬다.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단어

이 글은 다양한 단어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인간론', '유토피아', '목적론적 사고' 등 주요 개념을 다룬다.

이 글은 '마르크주의의 일차원적 인간론'에 대한 추가 논의를 포함한다. 마르크주의의 인간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추가 논의를 포함한다. 사회적 통합과 계층 간 위화감에 대해 논하고 있다.

